

## 울산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 수영장 이용 방안 마련 건의안

의안 번호	1336
----------	------

발의연월일 : 2017. 4. 6.

발 의 자 : 이효상 의원 외 10명

### 1. 주 문

- 울산혁신도시 내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사옥에는 지난 2014년 10월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1층에 길이 25m 레인 8개를 갖춘 수영장이 준공된 바 있음.
- 하지만 무려 68억원이 투입돼 건립된 이 수영장은 준공 3년여가 되어 가도록 단 한명도 이용하지 못한 '유령수영장'으로 전락한 실정임.
- 중구의회는 울산시의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건의하고자 함.

### 2. 제안이유

- 한국석유공사 수영장은 당초 '주민개방용'으로 건립된 만큼,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손익을 따지기에 앞서 사회적 편익과 공익성이 우선돼야 함.
- 또한, 각종 재난 및 해난사고에 대비, 학생들의 생존수영 정규 교육을 위한 시설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함.
-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구로서는 한 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수영장 운영 경비 마련에 무리가 있어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한국석유공사와의 협의에 주도적으로 나서 수영장 운영에 따른 적자분의 정부지원 방안 마련 등 긍정적인 검토를 건의 함

### 3. 건 의 문 : 따로 붙임

## 울산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 수영장 이용 방안 마련 건의안

120만 울산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울산광역시 김기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울산 방문의 해 지정을 계기로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25만 중구민을 대표하며 늘 함께하는 열린의정,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실천해 온 저희 중구의회 역시 시민을 위한 울산광역시의 행정력에 힘을 보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울산시의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울산혁신도시 내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사옥에는 지난 2014년 10월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1층에 길이 25m 레인 8개를 갖춘 수영장이 준공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무려 68억원이 투입돼 건립된 이 수영장은 준공 3년여가 되어 가도록 단 한명도 이용하지 못한 ‘유령수영장’으로 전락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수영장 운영에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10억원 이상의 적자발생이 추산되는 탓에 한국석유공사와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 모두 수영장 개장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금껏 개장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 수영장은 당초 ‘주민개방용’으로 건립된 만큼,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손익을 따지기에 앞서 사회적 편익과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울산 중구에는 현재 울산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인 동천실내수영장이 있지만 이용 수요가 너무나 높아 주민들 간 경쟁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저희 중구의회에는 수영장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런 해결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한국석유공사와의 MOU 체결을 위한 업무 추진 등 다각도로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보다 더 시급한 선결과제는 각종 재난 및 해난사고에 대비, 학생들의 생존수영 정규교육을 위한 시설인프라 부족 문제입니다.

울산에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생존수영 교육장이 울주군 3곳, 북구 2곳, 남·동구 각 1곳이 있지만 중구는 단 한곳도 없어 100% 민간시설을 이용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로 인해 수영장 1곳당 초등학생 수가 많게는 1,000명 이상 달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수영장 수요의 과밀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중구는 또 울산의 5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바다를 접하지 않는 지형적 조건 탓에 동천물놀이장을 비롯해 3곳에 간이 야외물놀이장을 개장, 구민은 물론 울산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야외’란 특수성으로 인해 사계절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어 수영장 이용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울산시는 늘어나는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와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실내수영장을 추가로 건립할 경우 부지 마련 및 건립예산 확보 등이 여의치 않다는 점 역시 가장 큰 난관입니다.

이에 저희 중구의회는 현재 건립된 한국석유공사 실내수영장이 하루빨리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구로서는 한 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수영장 운영 경비 마련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가 한국석유공사와의 협의에 주도적으로 나서 수영장 운영에 따른 적자분의 정부지원 방안 마련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수영장이 개방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울산시가 120만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중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은 건의안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한국석유공사 수영장이 울산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해 나가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2017년 4월 10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